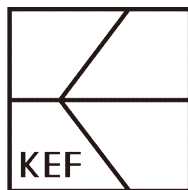


우리나라 임금 현황 분석 및 국제비교



한국경영자총협회

041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88 경총회관
88 Baekbeom-ro, Mapo-gu, Seoul, 04110 Korea
t. 02 3270 7300 w. www.kef.or.kr

1 우리나라 기업규모별 임금 수준 현황 (2021년 기준)

▶ 2021년 1~9인 사업체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49.4%

- (기업규모별 임금 수준) 2021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389.3만원이며, 10인 미만 사업체가 280.8만원, 10~29인 369.8만원, 30~99인 403.1만원, 100~299인 444.5만원, 300인 이상 568.7만원으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월 임금총액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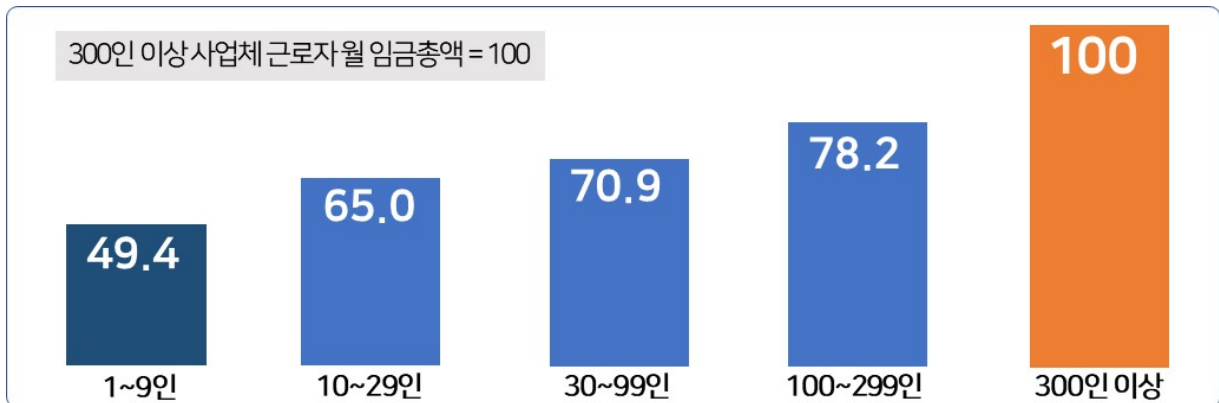
< 표. 2021년 기업규모별 월 임금총액 현황(상용근로자 기준) >

구분	월 임금총액 (원)	정액+특별급여	초과급여
전규모(1인 이상)	3,893,125	3,685,454	207,671
1 ~ 9인	2,807,521 (49.4)	2,760,172	47,349
10 ~ 29인	3,697,708 (65.0)	3,519,891	177,817
30 ~ 99인	4,031,215 (70.9)	3,731,607	299,608
100 ~ 299인	4,445,343 (78.2)	4,083,270	362,073
300인 이상	5,686,753 (100)	5,329,494	357,259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수준 대비 각 규모별 임금수준을 의미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산업/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2021년 기준)

-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100으로 보고 규모별 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한 결과, 최소규모에 해당하는 1~9인 사업체 근로자 임금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49.4 수준에 불과

< 그림. 2021년 기업규모별 월 임금총액 격차 비교 >



주. 2021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정액급여+특별급여+초과급여)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산업/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2021년 기준)

2 기업규모별 임금인상 크기 국제비교

▶ 2002~2018년 한·일·EU 기업규모별 임금인상률, 우리나라 대기업이 가장 커

- (국가별·기업규모별 임금인상률) 2002년 대비 2018년 우리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120.7%(228.4만원→504.2만원)로 EU 대기업 37.3%(2,593유로→3,562유로)와 일본 대기업 -5.1%(483.8천엔→459.0천엔)보다 월등히 높았음.
 - 동 기간 중소기업 임금인상률 역시 우리나라가 87.6%로 EU 주요국 (EU 15개국 평균 39.1%), 일본(0.8%)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표. 한·일·EU 기업규모별 월 임금총액 및 인상률 비교(2002년 vs. 2018년) >

(단위 : 만원, 천엔, 유로, %)

구분	중소기업 월 임금총액			대기업 월 임금총액		
	2002	2018	누적 인상률	2002	2018	누적 인상률
한국	160.8	301.6	87.6	228.4	504.2	120.7
일본	310.7	313.3	0.8	483.8	459.0	-5.1
EU (15개국 평균)	1,938	2,696	39.1	2,593	3,562	37.3

주 : 통계상 한계로 한국과 일본은 상용직 대상, EU는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분석. 따라서 임금총액 크기의 절대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인상률 비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EU는 종사상지위별 임금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상 한국의 대기업 기준을 500인 이상이 아닌 일본, EU와 동일하게 1,000인 이상으로 했다면 한국 대기업의 임금총액이 크게 올라갔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절대적 금액 비교도 가능

자료 : 각국 2002~2018 통계(한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일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유럽, Eurostat, SES)를 바탕으로 경총 분석. 한국과 일본은 2020년 자료까지 분석이 가능하나, EU는 2018년이 최신자료로, 한·일·EU 전체 비교는 2018년 기준으로 하였음. ; <중소기업 기준> 韓, 日 10~99인, EU 10~49인 ; <대기업 기준> 韓 500인 이상, 日·EU 1,000인 이상

3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국제비교

- ▶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 임금, 韓 1.67배 > 日 1.46배 > EU 1.32배 순
- ▶ 2002년 이후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 일본·EU 축소 vs. 우리나라 확대

- (한·일·EU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대·중소기업 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 ('대기업 임금=100' 가정시 중소기업 임금)한 결과, EU(15개국 평균) 75.7, 일본 68.3, 우리나라 59.8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비교국 가운데 가장 컸음(2018년 자국화폐 기준).

- 이는 지난 2002~2018년간 우리나라 대기업 임금인상률이 국내 중소기업은 물론 각국의 규모별 인상률에 비해 크게 높았음에 기인한 결과

< 표. 2018년 한·일·EU(15개국 평균)의 대·중소기업 간 월 임금 및 상대적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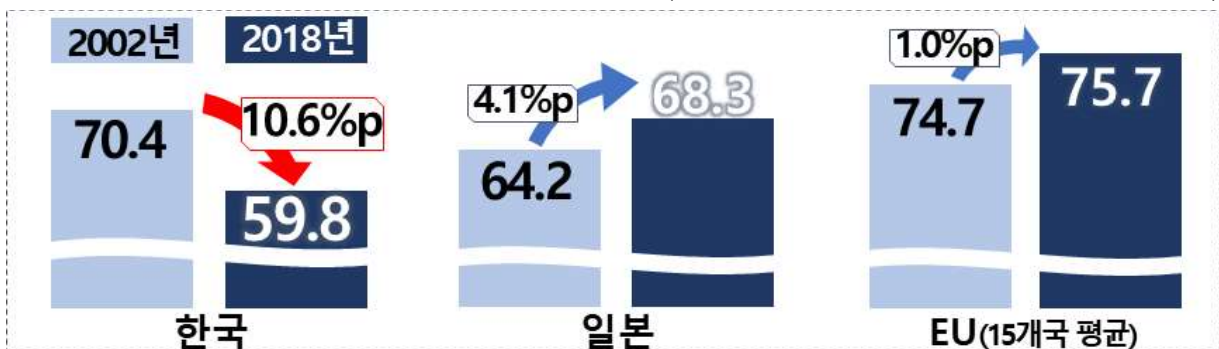
구분	중소기업(A)	대기업(B)	상대적 수준(A÷B)
한국	301.6만원	504.2만원	59.8
일본	313.3천엔	459.0천엔	68.3
EU(15개국 평균)	2,696유로	3,562유로	75.7

자료 : 각국 통계(한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일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유럽, Eurostat, SES)를 바탕으로 경총 분석 ; <중소기업 기준> 韓, 日 10~99인, EU 10~49인 ; <대기업 기준> 韓 500인 이상, 日·EU 1,000인 이상

- **(한·일·EU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변화)** 2002년 당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이 한국 70.4, 일본 64.2, EU 74.7이었음과 비교하면, 2002~2018년 일본과 EU는 규모간 임금격차가 축소된 반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임금이 더 크게 오르며 임금격차가 오히려 확대됨.

< 그림. 2002~2018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변화 >

(국가별 대기업 임금 =100 가정 시 중소기업 임금)



자료 : 각국 통계(한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일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유럽, Eurostat, SES)를 바탕으로 경총 분석 ; <중소기업 기준> 韓·日 10~99인, EU 10~49인 ; <대기업 기준> 韓 500인 이상, 日·EU 1,000인 이상

4 국가별 경제성장과 비교한 임금인상 크기

▶ 경제성장 대비 대기업 임금인상률, 우리나라가 비교국들보다 월등히 높아

- **(경제성장을 고려한 임금인상)** 2002~2018년간 우리나라는 비교국 중 1인당 명목 GDP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나(韓 123.3% > EU 50.7% > 日 6.9%), 이를 고려해도 대기업의 임금은 비교국들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분석됨.

* 각 국가의 임금인상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시변수가 경제성장률임을 고려하여, 임금인상률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기업규모별 임금인상률과 1인당 명목GDP 증가율을 비교

- 동 기간 1인당 명목 GDP 증가율 대비 대기업 임금인상률은 우리나라가 97.9로 가장 컸으며, EU(15개국 평균)는 73.7, 일본은 경제가 조금이나마 성장(6.9%)했음에도 대기업 임금이 오히려 5.1% 하락
- 한편, 1인당 명목 GDP 상승률 대비 중소기업 임금인상률은 EU(77.2), 한국(71.0), 일본(12.1) 순으로 나타남.

< 표. 2002~2018년 한·일·EU 1인당 GDP 증가율 대비 규모별 임금인상률 (누적) >

구분	1인당 명목 GDP 증가율 (A)	대기업		중소기업	
		월임금총액 증가율 (B)	B÷A	월임금총액 증가율 (C)	C÷A
한국	123.3%	120.7%	97.9	87.6%	71.0
일본	6.9%	-5.1%	-	0.8%	12.1
EU	50.7%	37.3%	73.7	39.1%	77.2

주 : EU의 1인당 명목 GDP 증가율은 조사대상 15개국의 증가율을 산술평균한 값임.

자료 : 2002~2018 통계(OECD; 한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일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유럽, Eurostat, SES)를 바탕으로 경총 분석

5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국제비교

※ 이하 내용은 2021년 12월 2일 발표된 경총의 「한·일·EU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 수준, 1년 미만 근로자 임금의 2.95배**, 일본(2.27배), EU(15개국 평균 1.65배) 보다 월등히 높아

○ **(한·일·EU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임금(초과급여 제외)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수준은 2.95배로, 일본(2.27배), EU(15개국 평균 1.65배)보다 높아, 우리나라의 임금 연공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남.

- **(임금격차 비교)** 근속 1년 미만 임금(=100) 대비 임금 격차는 모든 근속 연수 구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EU(15개국 평균)보다 높았음.

< 그림. 한·일·EU(15개국 평균)의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



자료 : 한국, 2020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일본, 202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유럽, Eurostat SES 2018 자료를 바탕으로 경총 분석

- **(임금의 연공성 추이)** 우리나라의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근속 30년 이상 임금 ÷ 근속 1년 미만 임금)는 2000년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일본, EU에 비해 쏠 기간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 근속1년 미만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격차 추이(2006년→2010년→2020년)
: [한국] 372→329→295, [일본] 267→246→227, [EU] 163→168→165(2018년)

- **(한일 근속연수별 임금 수준)** 2020년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월 평균임금은 우리나라(2,744달러)가 일본(2,392달러)보다 14.7%↑, 근속 30년 이상 임금은 우리나라(8,089달러)가 일본(5,433달러)보다 48.9%↑(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 **(지난 20년 간 근속연수별 임금 증가율)** 2001~2020년 우리나라 근속연수별 임금의 누적 증가율은 83.9%(30년 이상)~135.6%(1년 미만)로 높게 나타났으나, 일본은 △10.9%(30년 이상)~10.4%(1년 미만)로 정체된 양상

6 업종별 임금격차 국제비교

※ 이하 내용은 2022년 2월 6일 발표된 경총의 「한·일·EU 업종별 임금수준 국제비교, 보고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 ▶ ‘금융·보험업’, ‘전문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은 한·일·EU 모두 3대 고임 업종
- ▶ 자국 내 업종간 임금 격차, 한·일·EU 중 우리나라가 제일 커 양극화 뚜렷
- ▶ 각국 경제수준을 반영한 1인당 GDP 대비 임금수준, 우리나라가 가장 높아

- **(국가별 고임금 vs. 저임금 업종)** 한·일·EU 모두 금융·보험, 전문 서비스, 정보통신업이 3대 고임금 업종에 해당한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비교국 모두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남(2020년, 비교가능 11개 업종 기준).

- **(우리나라 금융업종 임금 강세)** 특히 우리나라 금융·보험업(7,373달러)은 국내 전체 업종 중에서 임금이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비교국 동일 업종 중에서도 임금이 가장 높게 형성*(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 EU(15개국 평균 6,912달러) 대비 6.7%↑, 일본(4,807달러) 대비 53.4%↑

- **(자국 내 업종간 임금격차)** 국가별 임금수준 1위 업종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최하위 임금업종(비교국 모두 숙박·음식점업)의 임금수준은 우리나라가 '36.7'로 가장 격차가 컸고, 1~2위 업종 간 격차 또한 우리가 가장 컸음.

< 2020년 한·일·EU 업종 간 임금 격차 (각국 1위 업종 임금 =100) >



자료 : 한국, 2020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일본, 202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유럽, Eurostat, SES 2014~18 자료를 바탕으로 경총 분석

- **(각국 1인당 GDP 대비)** 각국의 경제수준(1인당 GDP)을 반영해 임금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임금 상위 3개 업종 뿐만 아니라 전산업 평균 임금 수준 또한 비교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음(환율 무관).

< 표. 한·일·EU 1인당 GDP 대비 상위 3개 업종 및 전산업 임금수준 비교 (2020년 기준) >

구분	한국	일본	EU(15개국 평균)
금융 및 보험업	195.0%	135.9%	137.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9.4%	140.8%	116.9%
정보통신업	145.1%	137.3%	120.9%
전산업 평균	118.5%	107.0%	91.7%

자료 : 한국, 2020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일본, 202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유럽, Eurostat, SES 201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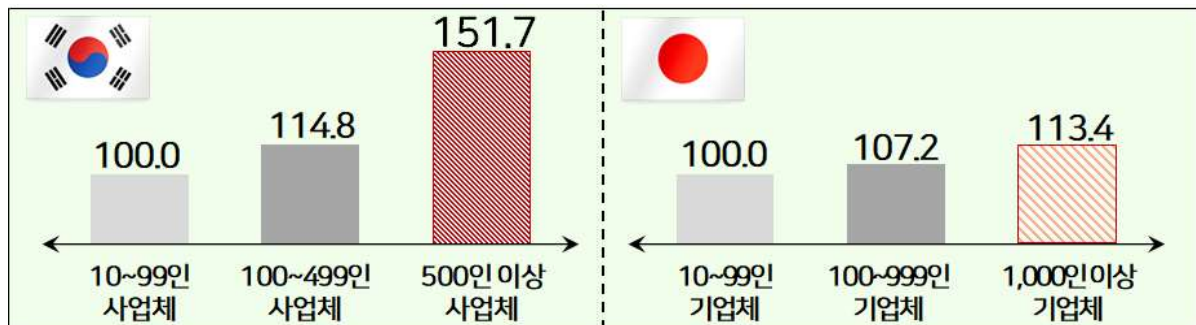
7 우리나라 대졸초임 분석 및 한·일 비교

※ 이하 내용은 2021년 10월 4일 발표된 경총의 「우리나라 대졸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 ▶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 평균 4,690만원, 5인 미만 정규직(2,599만원)의 1.8배 수준(2020년, 초과급여 제외)
- ▶ 한·일 대졸초임의 상대적 수준, 쏠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고 규모가 커질수록 그 차이도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

- **(대졸초임 수준)** 2020년 우리나라 대졸 신입 정규직 근로자 초임(초과급여 제외)은 평균 3,250만원, 기업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체가 2,599만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4,690만원)의 55.4% 수준에 불과
- **(한·일간 대졸초임 비교)** 구매력과 경제규모를 감안한 대졸초임의 상대적 수준(2019년 기준, 초과급여 제외)은 모든 사업장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보다 높았고, 그 차이 또한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쉐규모 평균 대졸초임, 우리나라 36,743달러 > 일본 28,973달러, 특히 우리 대기업(500인 이상 사업체)의 대졸초임 (47,808달러)은 일본(1,000인 이상 기업체, 29,941달러)보다 59.7% ↑
 - ※ 시장환율 기준으로는 韓 27,379\$(500인 이상 대기업 35,623\$), 日 27,540\$(1,000인 이상 대기업 28,460\$)로 나타남.
 - **(1인당 GDP 대비)** 우리나라 86.0% > 일본 68.7%(10인 이상 전규모), 특히 우리 대기업(500인 이상 사업체) 1인당 GDP 대비 대졸초임은 111.9%로, 일본(1,000인 이상 기업체, 71.0%)보다 40.9%p ↑
- **(한·일간 기업규모별 대졸초임 격차)** 각국 10~99인 사업체(일본은 기업체) 대졸초임을 100으로 볼 때, 일본 대기업(1,000인 이상)은 113.4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500인 이상)은 151.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 그림. 한일 규모별 대졸초임 격차 (2019년, 상용근로자 기준) >



자료 : (韓) 고용노동부, 2019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日) 후생노동성, 2019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바탕으로 경총 분석